

# 瑞山 普願寺의 刊行本과 匠人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by Bowonsa Temple and Master Craftsman

박 광 헌 (Park, Gwang-Hun)\*\*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보원사 開板 참여 匠人の 諸處 활동 |
| 2. 보원사의 역사 및 간행불서 | 6. 기타 匠人 분석            |
| 3. 각수를 통한 간행사항 분석 | 7. 맺음말                 |
| 4. 板刻手 表式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조선시대 보원사는 충청도 지역에서 많은 불서를 간행 사찰 중 하나로 1565년에서 1604년까지 총 14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보원사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각수는 보원사 외에도 다양한 사찰의 판각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주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고,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작업에도 참여했음을 확인하였다. 보원사는 조선시대에 다수의 불서를 간행할 정도의 규모와 경제력을 갖춘 사찰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寺址만이 남아 있고 관련 기록이 전무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책판이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앞으로 책판의 제대로 된 보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要語: 서산 보원사, 보원사지, 상왕산, 가야산, 개심사, 책판, 불교전적, 장인, 각수, 서사자, 연판

## <ABSTRACT>

During the Joseon Dynasty, Bowonsa was one of many Buddhist temples in Chungcheong-do. Bowonsa published a total of 14 Buddhist documents from 1565 to 1604. In addition to Bowonsa, each member participated in the engraving of various temples. The engravers mainly worked in Chungcheong-do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work of Jeolla-do and Gyeongsang-do regions. Bowonsa Temple was a temple of large scale and economic power that published many Buddhist books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 site remains and there are no related record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remaining woodblocks are the most important data to infer the past.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proper preservation environment for the woodblocks in the future.

Key words: Seosan Bowonsa Temple Site, Temples Publication, Buddhist Documents, Woodblock-printed book of Buddhism, Master Craftsman, engraver, Manuscripter, Carpenter

\* 본 연구는 2019년 10월 8일 서산 보원사에서 개최된 <서산 보원사의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atssara@hanmail.net)

투고일: 2019년 11월 18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2일  
서지학연구, 제80집, 191-217,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191>

## 1. 머리말

普願寺는 충남 서산군 가야산 줄기의 象王山에 존재했던 사찰로서 보원사지는 현재 사적 제 3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원사지에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埵文과 보원사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까지의 보원사는 높은 위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보원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조선시대 연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보원사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시대 문화유산인 보원사의 책판과 간행 불서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 역사를 살펴보았다.

보원사는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초까지 불서를 판각하였고, 그 목판은 최근까지 개심사에 보관되어 있었다. 보원사 간행 목판이 언제 개심사로 목판이 옮겨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목판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사찰소장 목판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sup>1)</sup> 이후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 중 2004년 조사<sup>2)</sup>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2014년에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sup>3)</sup>를 통해 목판의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6년 중요 목판을 인출한 자료집<sup>4)</sup>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앞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원사 간행 목판 중 4종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원사 간행 목판에 대한 선행연구는 임윤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개심사·보원사·가야사의 목판을 중심으로 형태적 특징을 살피고, 간행 참여자 분석을 통해 세 사찰이 유기적이고 협력적 관계 속에 판각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sup>5)</sup>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개별 인본의 서지사항 및 목판의 형태적 사항은 기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보원사 간행불서에 참여한 刻手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도출해냈다. 또한 보원사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각수의 타 사찰 刊役 활동을 정리·분석하였다. 각수 이외의 書寫者, 鍊板 및 木手 등의 匠人과 化主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1) 文化財管理局,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182-191.

2)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_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충청남도·대전광역시』(대전: 문화재청; 서울: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212-214.

3)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2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334-483.

4)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6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10 중요목판인출 2』(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6), 260-735.

5) 임윤수, “16·17세기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목판 제작에 관한 연구: 開心寺·普願寺·伽倻寺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8).

## 2. 보원사의 역사 및 간행불서

보원사는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사찰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많이 없다.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寺址에서 백제의 금동불입상이 발견되어 백제시대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지에 남아 있는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 102),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 103호),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 제 106호)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 보원사 역사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여러 논문 및 글에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보원사의 역사에 대해 관련 기록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보원사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책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지리지에 나타난 사항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리지와 책판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보원사의 역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보원사의 연혁

시기	내용	전거
1530년(중종 25)	보원사는 상왕산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
1565년(명종 20)	『법계성범수륙승회수제의례』, 『묘법연화경』 간행	전적의 刊記
1566년(명종 21)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 간행	전적의 刊記
1571년(선조 4)	『고봉화상선요』 간행	전적의 刊記
1577년(선조 10)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간행	전적의 刊記
1579년(선조 12)	『달마대사혈맥론』 간행	전적의 刊記
1580년(선조 13)	『달마대사관심논』, 『도가논변모자리혹론』 간행	전적의 刊記
1581년(선조 14)	강당사로 사찰명 변경, 『천지명양수륙잡문』 간행	전적의 刊記
1604년(선조 37)	『오대진언수구경』 간행	전적의 刊記
1619년(광해군 11)	강당사는 두 가지 이름인데, 보원사는 옛 이름이고 강당사가 새 이름이다. 여기에는 고각법당, 부도전, 고비, 나한전, 취계정 등이 있다.	『호산록』(사찬 읍지)
1640년(인조 18)	『고봉화상선요』 인경 “송덕오년경진십일일(崇德五年庚辰十月日)”	후쇄본 뒷표지 면지 묵서(개인소장)
1656년(효종 7)	보원사 상왕산에 있다.	『동국여지』 권3 『서산군 사찰』(古 4790-51)
1682년(숙종 8) 추정	보원사 수륙	『동여비고』(보물 제1596호)
1726년(영조 2)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인경 “옹정사년(雍正四年)”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中 전적 뒷표지 면지 묵서
1753년 (영조 29)	11월 23일	불전이 옛날에는 세 겹의 처마로 되었다고 하니 그 크고 화려함을 상상해볼 수 있다. 지금은 겨우 처마 하나만 남았고, 면지만 뒤집어 쓴 채 허물어져서 짧은 기둥과 서까래 대들보 등이 늘어져, 완전히 황량하게 되었다.
	12월 02일	
1754년~1757년	폐사 추정	
1757년~1765년 (영조 33~영조 41)	암우재강당사(巖右在講堂寺)(폐사)	『여지도서』 「충청도 서산」, 고적
1799년(정조 23)	보원사 금폐(今廢)	『범우고』 「서산」, 사찰
1872년(고종 9)	강당사 금폐지(今廢址)	『해미현지도』(奎 10420)

1619년에 제작된 사찬읍지인 『호산록』에는 “강당사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보원사는 옛 이름이고 강당사가 새 이름이다.”라고 하여 보원사에서 강당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80년에 간행된 전적의 간기에는 보원사로 기록하다가 다음해인 1581년에는 강당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원사는 1581년에 강당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제작된 『동국여지지』나 『동여비고』 등의 기록에서 보원사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어, 당시에는 강당사라는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장 보원사판 『고봉화상선요』의 뒷표지 면지에는 시주자 명단과 함께 “崇德五年庚辰十月日”이라는 목서기록이 있고 수국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中 보원사판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면지에는 “雍正四年”의 목서기록이 남아 1640년과 1726년에 각각 印經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상산삼매』의 1753년 11월 23일 기록에는 승려가 남아 있지만 보원사가 거의 폐사 일보직전의 상태임을 알 수 있고, 같은 해 12월 2일에는 개심사에 가서 사찰을 보고 板殿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심사에서 간행한 판본은 『계초심학인문』(1584년)과 『몽산화상육도보설』(1584년) 2종으로 각각 8판, 6판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이다. 따라서 총 14판의 목판을 보관하기 위한 판전을 따로 갖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이미 보원사의 목판이 개심사로 옮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19년에 제작된 『호산록』에는 개심사가 폐사된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浮屠殿과 새로 지은 3칸 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개심사는 임진왜란(1592~1598) 시기에 관리되지 못하다가 17세기 초에 중창 불사를 통해 18세기에 이르러 큰 사찰로 변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1757년에서 1765년에 걸쳐 간행된 『여지도서』의 古蹟條에 講堂寺라는 명칭이 등장하므로 강당사는 이미 폐사되고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1799년의 『범우고』, 『해미현지도』 등에도 폐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보원사는 1753년에서 1757년 사이에 폐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폐사 이전에 이미 사찰이 쇠퇴하여 1753년 이전에 개심사로 책판이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원사는 16세기에 쌍계사와 더불어 충청도에서 많은 불서를 간행한 사찰 중 하나이다. 보원사의 불서 간행은 16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원사는 도중 강당사로 사찰명칭을 고치고 1604년까지 불서를 간행하였다. 17세기에는 사세가 기울고 18세기 중엽에 유지되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원사에서 간행한 불서의 목판이 거의 온전히 개심사에 보존되고 있었으며, 2014년 사찰 목판일제 조사 후 중요 목판 4종이 보물로 지정되었다.<sup>6)</sup> 보원사 간행불서는 총 12종이며, 보원사가 강당사로 바뀐 후의 불서까지 포함하면 총 14종에 달하며<sup>7)</sup> <표 2>와 같다.

6) 개심사판 “계초심학인문 목판”(보물 제1962호)과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보물 제1964호), 가야사판 “성관자재 구수육자선정 목판”(보물 제1966호) 등이 같은 시기(2017년 12월)에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전체 목판은 현재 개심사, 보원사, 수덕사 근역성보관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  
7) 개심사 소장 책판 중 『달마대사관심론』과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은 보원사판으로 추정된다.

<표 2> 보원사의 시기별 간행 불서와 현존 책판

	서명	간행시기	간행사항	현존 책판	비고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1565	보원사 開刊	51판	
2	묘법연화경		보원사 留板	111판	보물 제1960호
3	제반문	1566	보원사 開板	26판	
4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보원사 刊板	32판	
5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보원사 留板	23판	
6	고봉화상선요	1571	보원사 開刊	13판	
7	영산회상도		보원사 開刊	1판	
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1577	보원사 留鑄	26판	보물 제1965호
9	달마대사혈맥론	1579	보원사 留鑄	7판	
10	달마대사관심론	1580	없음	8판	보원사판 추정
11	도가논변모자리혹론		新刊伽倻山普願寺	4판	보물 제1963호
12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16세기말]	없음	7판	『엄불작법』 합가 보원사판 추정
13	천지명양수륙잡문	1581	강당사 開刊	73판	
14	오대진언수구경	1604	강당사 開刊	9판	보물 제1967호
현존 책판: 총 13종 384판					

보원사에서 간행된 불서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총 14종 중 불교 의례집이 8종으로 가장 많으며, 찬술 4종, 경 1종, 불교관화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의례집 중에 특히 영혼천도와 관련된 불서가 5종인데 이 중 수륙재 의례집이 4종, 예수재 의례집이 1종을 차지한다.

<표 3> 보원사 간행 불서의 주제별 분류

경(1) 법화부	찬술(4)		불교 의례집(8)			불교관화류 (1)
	선서(禪書)	논서(論書)	영혼천도	밀교	상용	
묘법연화경	고봉화상선요 달마대사혈맥론 달마대사관심론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천지명양수륙잡문	오대진언수구경	제반문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영산회상도

보원사에서 불경을 주로 간행한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간행된 불서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전기 태조의 신앙조 건국 직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민심을 수습하는데 수륙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백년을 지속하던 고려왕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민심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태조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륙재에서 찾았다. 수륙재는 불교의 영혼천도 의식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었고, 대규모의 의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더할 나위 없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륙재를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으나, 국가의 사직과 종묘를 기린다는 명분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이로부터 수륙재는 민간

으로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본래의 목적인 영혼천도 뿐만 아니라, 수명장수, 질병구제, 해운의 안전, 후손의 發福, 天災 퇴치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설행되었다. 바야흐로 수륙재는 불교의식의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와 풍속으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왕실과 사대부에서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의 이른바 ‘無遮平等大會’가 되었다.<sup>8)</sup> 수륙재는 『경국대전』(1471년부터 시행)에도 그 설행에 대한 내용이 전하는 유일한 불교의례가 되었다. 『국조오례의』 단계가 되면 수륙재는 『국조오례의』에 포함되지 못하나 厲祭는 소사로 포함됨으로서 이후 조정에서는 여제만을 설행하게 되었다.<sup>9)</sup> 『국조오례의』는 成宗 5年(1474)에 간행되었는데 이로서 왕실의 공식적인 불교의식은 국법에서 삭제되었다.

조선전기 태조부터 세조까지 강하게 유지되던 왕실의 불교사업은 성종에 이르러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성종대에는 1471년 6월 도성 내의 염불소가 폐지되고, 그 해 12월에는 간경도감이 철폐되었다. 2년 후 불교신앙 활동의 주축이 되었던 여성들의 사찰 출입과 사족 부녀자들의 출가를 금하였다. 1475년 도성 내외 비구니 도량을 폐쇄하였고, 1477년에는 祝壽齋 금지, 1492년 度僧牒을 폐지하였다. 연산군과 중종대에는 불교 탄압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사찰 토지를 비롯해 왕의 賜牌가 있는 능침, 경내의 원당 및 사사의 토지와 노비를 모두 거두어 들였다.<sup>10)</sup>

16세기에는 중종의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1501~1565)가 명종대에 수렴청정을 시행하며 강력한 권력 통해 역불정책을 무시하고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고 불교를 진작하였으며, 도첩제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수륙재가 민간에 까지 크게 번진 것으로 판단되며, 수륙재와 관련한 불서들이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보원사의 간행본 중에는 특히 불교 의례집 중 수륙재 관련 불서의 간행이 두드러지는데, 수륙재의 절차와 방법을 언급한 영혼천도집에 해당하는 5종뿐만 아니라 『묘법연화경』과 『영산회상도』 또한 수륙재와 관련되어 조선전기에 간행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묘법연화경』의 발원문을 보면 대부분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다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묘법연화경』의 印經 또한 亡者의 명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묘법연화경』의 간행 및 인경과 수륙재와 같이 영혼 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산회상도』가 판각된 이유도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법할 때의 장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연관하여 망자의 명복을 위해 판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세기에 수륙재 관련 불서를 여러 사찰에서 간행한 것은 15세기 왕실의 수륙재가 중지되고 각 사찰의 수륙재가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보원사에서도 수륙재 관련 불서들을 다수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원사는 당시 다량의 불서를 간행한 타 사찰과 다르게 중앙에서 간행되어 유포된 『月印釋譜』, 『禪宗永嘉集』(諺解) 등의 간행본이 전혀 없어 중앙과 상관없이 사찰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불서를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8) 한상길,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23(2009), 702-704.

9) 강호선,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2017), 510-511.

10)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11.

### 3. 각수를 통한 간행사항 분석

각수 지칭어는 차서를 가리키는 秩의 글자를 생략하면 조선 전대를 통해 刻手, 刻字, 刻의 순으로 많이 쓰였고, 刊字와 刻員, 刻工, 刀, 刊刻, 原刻, 良工도 자주 쓰인 편이다.<sup>11)</sup> 보원사판의 경우에는 ‘刻手’가 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刻’, ‘開刊’이 각각 2회, ‘刻字’가 1회 사용되었다.

<표 4> 보원사 간행 불서 권말 각수

	서명	간행시기	전체장수	명칭	권말 각수 명단	비고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명종20(1565) 夏	89장	刻字	玲玉, 惠禪, 宝敬, 空紙, 性崙, 玉淨, 性[安], 万熙	
2	묘법연화경	명종20(1565) 季夏	428장	刻手	玲玉, 守仁, 惠禪, 宝敬, 空紙, 万熙, 性安, 玉淨, 性崙	
3	제반문	명종21(1566) 3월	93장	刻手	惠先, 道眞	
4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명종21(1566) 3월	65장	刻	崇悟	
5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명종21(1566) 5월	50장	刻手	崇悟, 道眞	
6	고봉화상선요	선조4(1571) 3월	52장	功德主	없음	惠禪 추정
7	영산회상도	선조4(1571) 3월	1장	功德主刻手	惠禪	
8	예수십왕생칠재의찬요	선조10(1577) 季夏	62장	刻手	道明, 廣惠, 信峯	
9	달마대사혈맥론	선조12(1579) 仲夏	20장	開刊	廣惠	
10	달마대사관심논	선조13(1580) 3월上澣	22장		없음	
11	도가논변모자리혹론	선조13(1580) 4월	17장	開刊	妙敬, 惠崙, 廣惠, 太雄	
12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16세기 말]	51장		없음	
13	천지명양수륙잡문	선조14(1581)	147장	刻	道明, 惠崙, 大雲, 廣惠, 尙玄, 惠鑑	
14	오대진언수구경	선조37(1604) 12월	27장		없음	

보원사에서 간행된 불서 가운데 『묘법연화경』이 7권으로 분량이 가장 많으며, 전체 장수도 428장에 달하여 가장 많은 각수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에 간행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경우는 전체 89장으로 『묘법연화경』에 비해 분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 8명의 각수가 동원되었다. 이는 93장의 『제반문』에 2명의 각수가 동원된 것과 비교 할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간기를 보면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가 1565년 여름[夏]에 간행되었고, 『묘법연화경』은 같은 해 늦여름[季夏]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두 인본의 각수 중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두 책의 판각을 동시에 의뢰 받아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를 먼저 간행하고 이어 분량이 많은 『묘법연화경』을 간행할 때는 각수 ‘守仁’ 1명을 추가하여 판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1571년 3월에 간행된 『고봉화상선요』는 권말에 각수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시주 겸 공덕주로 ‘比丘惠禪’이 기록되어 있다. 16세기 판본에서는 自刊이니 功德刀니 하여 각수의 판각 공덕을 겸칭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sup>12)</sup>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공덕주’는 간행의 功役을 실천한 각수로

11)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2014), 16.

12) 김상호(2014), 17.

과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봉화상선요』와 동년동월에 판각된 『영산회상도』 변상판화에는 “施主 兼 功德主刻手比丘惠禪”이라는 기록을 통해 동일한 방식의 각수명 사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고봉화상선요』의 권말에는 비록 ‘각수’가 기록되지 않아도 ‘惠禪’을 각수로 추정할 수 있다.

보원사에서는 1580년에는 3월 상한에 『달마대사관심론』의 판하본을 書寫하였고, 이어 4월에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을 판각하였다. 『달마대사관심론』에는 각수 및 간행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22장의 뒷면에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17장이 판각되어 있어 두 판각이 연이어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와 『묘법연화경』의 사례처럼 동일한 각수가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판각수 표식’ 분석을 통해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판각에 소요된 시간은 각수의 숙련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다. 『국조보감감인칭의계』에는 “각수 한사람이 3일에 걸쳐 1판을 완성한다.”<sup>13)</sup>는 기록이 있다. 『국조보감』은 정조가 국가적 사업으로 널리 배포하기 위해 간행하였기 때문에 京鄕의 우수한 각수들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숙련된 각수는 3일에 1판을 완성할 수 있고, 16세기에 보원사판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들 또한 숙련된 각수라고 가정할 때 각 인본을 판각하는데 걸린 소요일을 계산하면 <표 5>와 같다. 1판은 양면이므로 개별 각수는 3일에 2장을 판각할 수 있고 1장을 판각하는데 1.5일이 소요된다. 『묘법연화경』, 『영산회상도』, 『천지명양수륙잡문』, 『오대진언수구경』 등의 경우는 변상판화가 수록되어 있지만 판각의 시간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판각에 걸린 소요일은 65장을 혼자서 판각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가 약 97.5일로 가장 오래 걸리고 1판의 『영산회상도』를 제외하면 17장을 4명이 판각한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이 약 6.37일로 가장 빨리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보원사 간행 인본별 판각 소요일 추정

	서명	전체장수 (서·발등 포함)	각수 인원	추정 판각 소요일	비고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	89장	8명	약 16.6일	
2	묘법연화경	428장	9명	약 71.3일	변상판화 수록
3	계반문	93장	2명	약 69.7일	
4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65장	1명	약 97.5일	
5	수륙무차평등계의활요	50장	2명	약 37.5일	
6	고봉화상선요	52장	(1명 추정)	약 78일	
7	영산회상도	1장	1명	약 1일	단독 변상판화
8	예수시왕생칠계의찬요	62장	3명	약 30.9일	
9	달마대사혈맥론	20장	1명	약 30일	
10	달마대사관심론	22장	(4명 추정)	약 8.25일	
11	도가논변모자리혹론	17장	4명	약 6.37일	
12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51장	(4명 추정)	약 19.1일	
12	천지명양수륙잡문	147장	6명	약 36.7일	변상판화 수록
13	오대진언수구경	27장	(1명 추정)	약 40.5일	변상판화 수록

13) 『國朝寶鑑監印廳儀軌』 監印事實 壬寅 4月26日.

#### 4. 板刻手 表式 분석

목판본에서 각수의 표기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권말의 간기부분에 수록된 刻手秩이다. 전적의 각수를 파악할 때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권말에 수록된 각수질을 통해 이루어졌다. 권말의 간기 부분 외에 각 책판에도 각수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각수들이 경판을 새길 때 각 판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책판에 자신이 새긴 판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각 책판에 새겨진 각수명은 魚尾와 版口 그리고 변란 밖의 우측 하단 등에 기입된 것이 대표적이다.

版口의 경우는 黑口는 음각으로, 白口는 주로 양각으로 새기며 간혹 음각으로 새긴 경우도 있다.

版面 밖에 각수명이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음각으로 새긴 경우가 많으며, 마구리 등에 묵서로 쓴 경우도 확인된다. 판면 밖의 각수명은 인경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책판에 기록된 각수명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각 책판에 기록된 각수명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용어 또한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어느 위치에 각수명이 있다. 정도만 언급할 뿐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각 책판에 표시한 각수명을 정리한 의미 있는 연구<sup>14)</sup>는 2017년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각수명으로 추정되는 약식문자” 또는 “略名”으로 용어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약명뿐만 아니라 전체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름이 변형되어 署名처럼 쓰는 경우, 자신만이 아는 문양을 새기는 경우도 있어 개별 책판에 기록된 刻手名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개별 책판에 기록된 각수명은 판각의 책임소재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는 “板刻手 表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식이란 사전적 정의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일정한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된 개별 책판 각수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각각의 冊板에 각수를 나타내 보이는 일정한 방식의 표시를 “판각수 표식”으로 칭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보원사 간행본 중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달마대사혈맥론』의 경우는 단독의 각수로 굳이 판에 각수표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각수 표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영산회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독 각수이면서 단판으로 구성되어 판각수 표식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이들 판본을 제외한 나머지의 확인이 가능한 판각수 표식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14) 김지완, 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71집(2017), 253-296.

<표 6> 보원사 간행본의 '판각수 표식'

서명		각수 표식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	玲玉	惠禪	宝敬		空紙	性崐		玉淨	性安	万熙		(未詳)
		.	.			.							
2	묘법연화경	玲玉	守仁	惠禪	宝敬	空紙		万熙	性安	玉淨	性崐		(未詳)
		.		.	.	.			.				
3	제반문	惠先	道眞	(未詳)									
		.											
4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崇悟	道眞										
5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道明	廣惠	信峯									
6	달마대사관심론	廣惠	太雄(추정)										
7	도가논변모자리혹론	妙敬	惠崐	廣惠	太雄								
		.	.		.								
8	천지명양수륙잡문	道明	惠崐		大雲	廣曹(惠)		尙玄		惠鑑	(未詳)		
		.											

보원사 불서 간행에 참여한 각수 중 '惠禪'은 1565년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1571년까지 활동하였다. 하지만 '혜선'의 판각수 표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수 '性崐'은 가장 다양한 판각수 표식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性崐刀'라는 표현이 있는데 '性'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그 밖에 '崐'과 그것을 다시 축약한 '山++'과 '山+-'

刀'를 쓰기도 하였다. 또 '山'자와 한글로 '은'으로 쓴 경우도 있다.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에서는 주로 흑구에 음각으로 판각수 표식을 하였고, 『묘법연화경』에서는 백구에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식을 하였다. 백구에 음각으로 표시한 경우는 판심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하고 검은 바탕으로 되어있어 어미로 오인할 수 있지만 판각수 표식을 위한 것일 뿐 어미와는 차이를 보인다.

각수 '廣惠'는 1577년에 처음 참여하여 1581년까지 활동하였다. '광혜'는 각수 중 가장 명확하고 통일된 판각수 표식을 사용하고 있다. 광혜의 판각수 표식은 자신의 이름자 중 '惠'자와 음이 동일한 '兮'자를 草書에 가깝게 쓴 판각수 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미 또는 흑구에 음각으로 표식을 기입하였다. '광혜'는 개심사의 판각에도 참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판각수 표식이 확인된다.

서명	각수명	광혜	묘순(연관 겸 각수)		계선(연관 겸 각수)	
			상어미	하어미	상어미	하어미
몽산화상 육도보살				상어미		상어미
				하어미		하어미
계초 심학인문						

<그림 1> 1584년 개심사 간행 『몽산화상육도보살』과 『계초심학인문』의 판각수 표식

강당사에서 간행한 『천지명양수륙잡문』에는 권말 각수질에 '廣曹'<sup>15)</sup>가 있다. '曹'자의 경우는 이체자로 되어 있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의 서문, 본문의 어미와 발문 3장의 어미와 권말에 수록된 『修設水陸法事所五佛地藏聖號所牒』의 b면 4행 하단 등 전형적인 '광혜'의 표식이 다수 나타난다. 따라서 '廣曹'가 誤記일 것으로 생각되며, 각수 '광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문 1장	발문 3장	『수설수륙법사소오불지장성호소첩』 b면 4행	발문 1장
廣惠			惠鑑

<그림 2> 『천지명양수륙잡문』의 판각수 표식 중 광혜와 혜감

15)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 소장 목판 일제조사\_2 충청북도 충청남도』 p.435에서는 판독되지 않아 'O'로 수록되어 있고, 임윤수의 논문에서도 未詳의 글자로 두고 있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발문 1장에는 한글로 “혜”자 표식이 있다. 해당 판본의 각수 중 ‘광혜’와 ‘惠鑑’ 모두 ‘혜’자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 판단이 어렵지만 ‘광혜’의 각수 표식의 일관성으로 미루어 볼 때 한글 ‘혜’자만을 기입한 각수는 ‘혜감’으로 추정된다.

각수 ‘道明’은 ‘明’자를 거꾸로 새긴 표식을 사용하였는데 거꾸로 새긴 표식은 개심사의 각수로 참여한 ‘戒禪’과 ‘廣惠’에서도 확인된다.

『달마대사관심론』은 권말에 각수질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木手 李業具”라는 기록이 있어 이를 각수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두 판각이 연이어 행해진 『도가논변모자리혹론』과 동일한 각수가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달마대사관심론』의 판각수 표식에는 ‘광혜’의 표식과 ‘雄’자 표식이 확인된다. 이 ‘웅’자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각수 ‘太雄’으로 추정되어 두 인본이 동시에 동일 각수에 의해 판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수 ‘尙玄’의 경우는 한글 ‘상’을 上魚尾에 한자 ‘玄’을 下魚尾에 동시에 표시한 판각수 표식을 보여준다. 한글로 판각수를 표시한 경우는 ‘性崑’과 ‘惠崑’이 ‘은’자로 일부 표식을 삼은 경우가 있으나, 한 판에 이름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경우는 드물다.

보원사에서 1571년에 간행한 『고봉화상선요』에는 권말의 각수질 뿐만 아니라 판면에서의 판각수 표식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목판에서 판면 밖의 문자가 확인되는데, 각수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의 경우에도 23장의 판면 우측에 ‘| 山大八心上’이라는 각(刻)이 남아 있지만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각수는 ‘승오(崇悟)’로 각수 표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판면 외부에 판각수를 표시한 경우는 보원사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각들은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해당 목판과 내용과의 연관성이 없으며, 서체와 판각이 조잡하여 후대에 연습용으로 새긴 것으로 추측된다.

## 5. 보원사 開板 참여 匠人의 諸處 활동

조선시대 匠人의 활동은 개별 사찰 또는 개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유명한 각수의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각수들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곳에서 서적을 간행할 당시 발탁된 각수이다. 또한 刻手僧의 경우에는 글자를 판각만을 하는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鍊板을 담당한 인물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印出匠을 겸한 각수도 있으며, 문장과 서예에도 뛰어난 경우 書寫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보원사판 불서의 판각에 참여한 匠人은 人名으로 보아 대부분 승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원사 간행본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전국의 사찰 간행본에서 동일 인명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였다. 보원사 간행본 이외에 타 사찰의 간행에 시주질로만 참여한 인물은 제외하였다.

## 5.1 惠禪

‘혜선’은 1565년 보원사에서 간행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묘법연화경』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1566년에 간행한 『제반문』의 각수에는 “惠先”이라는 인물이 있다. 개심사 간행본의 『몽산화상육도보살』(1584년)의 각수 “戒禪”이 각수표식에는 “戒先”으로 표기되어 있고, 각수 ‘万熙’의 경우에도 판각수 표식에는 “万希”로 표기하는 등의 예를 볼 때 同音字를 쓴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반문』의 판각에 참여한 “惠先”도 “惠禪”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71년에 간행한 『고봉화상선요』에는 권말에 각수명이 기입되지 않았다. 대신 권말에는 혜선이 시주 겸 공덕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혜선은 같은 해에 판각된 단독 變相版畫인 『靈山會上圖』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고봉화상선요』와 『영산회상도』 모두 1571년 3월의 간기를 가지고 있고, 功德主가 판각의 공덕이라는 측면으로 파악하면 혜선이 『고봉화상선요』의 각수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산 神心寺에서 1563년 간행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sup>16)</sup>의 副刻手의 이름이 ‘惠禪’으로 되어 있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5.2 性唄

‘성은’은 1565년 보원사에서 간행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묘법연화경』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성은’은 1563년 8월 상주 보문사판 『불설대보부모은중경』,<sup>17)</sup> 1576년 청주 菩薩寺版 『綾城具氏姓譜』,<sup>18)</sup> 1582년 남원 烟觀寺版 『묘법연화경』의 각수로도 참여하고 있다.

보살사판 『능성구씨성보』의 권말에는 “萬曆丙子春淸州菩薩寺開刊凡若干板構別閣于沔川郡移藏擇吏官奴一人俾守護無失墜焉”이라는 간기가 있다. 이를 통해 1576년 봄에 청주의 보살사에서 간행하여 별도의 건물을 세워 면천군으로 옮겨 보관하고 관노 한 명을 뽑아 지키게 하여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당시 간행에 참여한 장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출신 지역과 신분을 기록하고 있어 장인의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이 기록에 ‘성은’은 “淸州僧性唄”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주지역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성은은 각수뿐만 아니라 1554년 예천에서 인출된 『묘법연화경』의 인출장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sup>19)</sup>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1562년)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1563년),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6년) 등에 ‘성은’은 시주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6) 刊記：嘉靖四十二年癸亥暮春既望淸溪訥菴書于神心丈室 … 淸洪道牙山地桐林山神心寺留板  
연관 및 각수는 鄭世隣이 담당하였다.

17) 남권희, 임기영, “경상도 북부지역 사찰의 불교 자료 간행,” 『경북불교의 재발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7), 65.

18)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 41, 奎 42)

19) 남권희, 임기영(2017), 64.

한편 1619~1621년에 송광사의 주지를 지낸 ‘성은’이라는 인물이 있다. 송광사 국사전에 봉안된 16국사 진영의 化主를 맡은 인물이다. 각수로 활동한 ‘성은’과 송광사 주지 ‘성은’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5.3 守仁

‘수인’은 1565년 보원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565년에는 보원사에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와 『묘법연화경』을 함께 간행하였는데 여름에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괘』를 먼저 간행하고 늦여름에 『묘법연화경』의 판각을 이어나갔다. 이때 비교적 분량이 많은 『묘법연화경』의 간행을 위해 각수 1명이 추가 되었는데 이 각수가 바로 ‘수인’이다. ‘수인’은 1545년 경남 하동의 神興寺, 1555년 천안 廣德寺, 1562년 화순 雙峯寺 등의 『묘법연화경』 간행에 각수로 참여하였다.<sup>20)</sup> ‘수인’은 1547년에 나주 쌍계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sup>21)</sup>의 각수로도 참여를 하였다. 나주 쌍계사판 『묘법연화경』에는 ‘수인’ 외에도 보원사판의 간행에 참여한 각수 ‘宝敬’과 ‘崇悟’도 함께 각수로 활동하였다. ‘수인’은 16세기 중엽 『묘법연화경』의 판각에 전문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원사에서도 『묘법연화경』을 간행하면서 초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인’은 불서 뿐만 아니라 1549년에 간행된 『古文軌範』의 각수로도 참여하였다. 유희춘의 『眉巖日記』 1570년 6월 3일에는 “『고문궤범』이 尹參判에게서 왔다. 關東에서 인쇄하였다.”<sup>22)</sup>는 기록이 있다.

전라도 부안 蒼窟庵에서 간행된 『계초심학입문』(1564년)과 『몽산화상법어약록』(1565년)의 합철본의 권말에는 각각 “自備自板守仁”과 “板自備鍊板守仁”이라는 기록이 있어 ‘수인’은 각수뿐만 아니라 鍊板으로도 활동하면서 판목을 시주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한편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소겐지[曹源寺] 소장 불화 『석가설법도』(1562년)에는 “畫士守仁比丘”라는 기록이 있는데<sup>24)</sup> 각수 ‘수인’이 佛畫僧으로도 활동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635년 은진 쌍계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에도 ‘수인’이라는 인물이 있으나 간행시기가 신흥사와는 90년, 보원사와는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참조.

21)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16294) 권7 122장 B면 刊記.

22) 柳希春 著, 潭陽鄉土文化研究會 編, 『眉巖日記草』 (담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6), 246.

23)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30191) 각 인본의 卷末 刊記.

24)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서울: 시공사, 2008), 498.

## 5.4 宝敬

‘보경’은 1565년 보원사에서 간행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묘법연화경』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1545년 전라도 안심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권5의 권말에 수록된 간행 참여 명단에 ‘보경’이 幹善으로 되어 있다.<sup>25)</sup> ‘보경’은 1547년에 나주 쌍계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의 각수로도 참여하였다.<sup>26)</sup>

## 5.5 智軒

‘지현’은 보원사판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1566년)의 書寫를 맡았고, 『영산회상도』(1571년)의 제작에도 시주로 참여하였다. 논산 雙溪寺에서 간행한 『대혜보각선사서』(1566년),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1567년), 『몽산화상육도보설』(1568년), 『월인석보』(1569년),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특성취다라니계청』(1569년),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1571년), 『월인석보』(1571년)의 각수에도 ‘지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 논산 쌍계사 간행본 중 『불설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특성취다라니계청』(1569년)에는 ‘鍊板大施主’로도 참여하고 있어 각수 뿐만 아니라 연판으로도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1575년 고산 安心寺에서 간행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각수로도 ‘지현’의 이름이 나온다. 이를 종합할 때 ‘지현’은 주로 쌍계사에서 활동하는 각수로 파악되며, 여러 사찰에서 서사, 각수, 연판 등으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장인으로 생각된다.

## 5.6 廣惠

‘광혜’는 보원사에서 간행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7), 『달마대사혈맥론』(1579), 『도가논변모자리혹론』(1580) 등의 권말에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광혜’는 보원사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심사에서 간행한 『계초심학인문』(1584)과 『몽산화상육도보설』(1584)의 간행에도 각수로 참여하였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경우에는 권말에 書寫者로 ‘廣慧’로 기록되어 있는데, ‘慧’자의 경우 ‘蠢’의 형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체자로 되어 있다. 이체자로 썼지만 각수인 광혜로 추정할 수 있다.<sup>28)</sup> 앞서 언급한 대로 판각수 표식을 통해 ‘광혜’는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각수로도 활동하고 있음을

25) 고양 원각사 소장본.

26)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16294) 권7 122장 B면 刊記.

27) 임기영, “恩津 雙溪寺 간행 불서 연구,” 『書誌學研究』 78(2019. 6), 175-212. 참조.

28) 임윤수의 논문에서도 한자명이 다르지만, 이 시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승려이기 때문에 동일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알 수 있다. 따라서 광혜는 『천지명양수록잡문』의 서사자 뿐만 아니라 각수로도 참여하고 있다. 『천지명양수록잡문』 권말 각수질에는 광혜가 ‘廣曹’로 기록되어 있어 본인이 권말 관하본을 서사하면서 이름을 다르게 쓴 것이 의문점으로 남는데, 이는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 5.7 万熙와 性安

‘만희’와 ‘성안’은 1565년 보원사에서 간행한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와 『묘법연화경』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이후에 둘은 1569년 경주 보문사판 『묘법연화경』의 판각에 함께 참여하였다.

‘만희’는 보원사 이외에도 1562년 화순 쌍봉사판 『묘법연화경』의 각수로 활동하였으며, 한해 전인 1561년에는 장흥 천관사판 『묘법연화경』의 간행에는 연관으로도 활동하였다.

## 5.8 崇悟와 道眞

‘승오’와 ‘도진’은 1566년에 보원사의 개판에 참여한 각수로 ‘승오’는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를 ‘도진’은 『제반문』을 ‘혜선’과 함께 판각하였으며,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에서는 ‘승오’와 ‘도진’이 함께 각수로 참여하였다. 1566년의 판각은 이전부터 보원사 개판에 참여한 ‘혜선’이 ‘승오’와 ‘도진’과 함께 작업을 나누어 3책을 판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승오’는 보원사 간행 참여 이전에도 1547년의 나주 쌍계사 『묘법연화경』, 1555년의 천안 광덕사 『묘법연화경』의 간행에도 각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sup>29)</sup> 승오는 선조 9년(1576) 청주 보살사에서 간행한 『능성구씨성보』<sup>30)</sup>의 간행에 야장(冶匠)으로 참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능성구씨성보』 권말의 “溫陽僧崇悟”라는 기록을 통해 ‘승오’는 온양 지역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승오’와 ‘도진’은 보원사의 활동 이후 1569년 보은 법주사의 『불조삼경』 판각에도 함께 참여하였으며,<sup>31)</sup> 명종 14년(1559) 충청도 감사에서 판각한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를 선조 6년(1573)에 계룡산 軍藏庵에서 인쇄한 인본의 인출 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다.<sup>32)</sup> ‘승오’와 ‘도진’은 각수 뿐 아니라 印出匠으로도 함께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명의 장인이 동시에 작업에 참여하는 등으로 볼 때 두 인물의 협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보원사 간행에 참여한 장인이 타 사찰의 간행에도 참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표 7>과 같다.

29)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D16294) 卷末 刊記.

3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 41, 奎 42).

31)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대학원 貴 111B) 卷末 刊記.

3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증보판) 2-전적, 회화, 지도, 서예』 (서울: 서울특별시, 2011), 230.

<표 7> 보원사판 장인의 제처(諸處) 활동

[■:각수(刻手), ▨:연판(鍊板), ○:인출장(印出匠), ◆:서사자(書寫者), ▲:야장(冶匠), ▣:간선(幹善)]

시기	지역	사찰	장인(匠人) 참여 작업	장인(匠人)													비고		
				혜선	성은	수인	만희	보경	공지	성안	승오	도진	지현	광혜					
1545	고산	안심사	묘법연화경					■											
	하동	신흥사	묘법연화경			■													
1547	나주	쌍계사	묘법연화경			■		■				■							
1554	예천	未詳 (인출)	묘법연화경		○												1527년 광흥사판		
1555	천안	광덕사	묘법연화경			■						■							
1561	장흥	천관사	묘법연화경				▨		■										
1562	화순	쌍봉사	묘법연화경			■	■	■											
1563	아산	신심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상주	보문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1564	부안	창골암	계초심학입문			▨													
1565	부안	창골암	몽산화상법어약록			▨													
		서산	보원사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	■	■		■	■	■	■								
1566	서산	보원사	묘법연화경	■	■	■	■	■	■	■									
			제반문	■										■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	■	◆			
	논산	쌍계사	대혜보각선사서												■				
1567	논산	쌍계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1568	논산	쌍계사	몽산화상육도보설												■				
1569	논산	쌍계사	월인석보												■				
			수구다라니											■					
	보은	법주사	불조삼경									■	■						
	경주	보문사	묘법연화경				■			■									
1571	서산	보원사	고봉화상선요	■														추정	
			영산회상도	■															
	논산	쌍계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				
			월인석보											■					
1573	공주	군장암 (인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계									○	○				1559년 갑사판		
1575	고산	안심사	금강반야바라밀경												■				
1576	청주	보살사	능성구씨성보		■								▲						
1577	서산	보원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			
1579	서산	보원사	달마대사혈맥론													■			
1580	서산	보원사	달마대사관심론													■			
			도가변론모자리혹론													■			
1581	서산	보원사 (강당사)	천지명양수륙잡문													■	◆		
		장흥	보림사	묘법연화경					▨										
1582	남원	연관사	묘법연화경		■														
1584	서산	개심사	계초심학입문													■			
			몽산화상육도보설														■		

<표 7>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565년 보원사의 간행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묘법연화경』은 그 전에 다른 사찰의 각수로 활동하던 인물들을 모집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수의 『묘법연화경』 각수로 활동한 ‘수인’은 보원사 이전에도 ‘만희’, ‘보경’ 등과 함께 판각에 참여하였으며, 이 3명의 인물은 각수 외에 鍊板으로도 활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인’은 보원사 판각에서는 같이 활동한 적은 없지만 ‘승오’와도 함께 판각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수 ‘만희’와 ‘성안’은 1565년 보원사의 간행에서 같이 활동하였고, 이후 1569년에는 경주 보문사의 『묘법연화경』 판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성은’, ‘승오’, ‘도진’은 印出匠으로도 활동하였으며, ‘지현’과 ‘광혜’는 서사자로도 활동하였다. 이중 ‘승오’는 드물게 刻手, 印出匠, 冶匠으로도 활동하여 당시 장인으로서 뛰어난 승려들은 다방면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보원사판 각수의 지역별 활동

活動地域	匠人	惠禪	性崙	守仁	万熙	宝敬	空紙	性安	崇悟	道眞	智軒	廣惠	합계
충청	남도	6	2	2	2	2	2	2	4	3	8	7	40
	북도		1						2	1			4
전라	남도			2	2	2	1		1				8
	북도		1	2		1					1		5
경상	남도			1									1
	북도		2		1			1					4
합계		6	6	7	5	5	3	3	7	4	9	7	62

보원사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각수 중 타 사찰의 간행에 활동이 있는 장인의 지역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이 중 ‘성은’과 ‘수인’ 등이 4곳의 도에서 활동하였으며, ‘만희’, ‘승오’ 등은 3곳의 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혜선’과 ‘광혜’ 등은 타 지역의 활동이 거의 없다.

충청도에서의 불서 간행 참여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전라도는 13건이었으며, 경상도가 5건으로 가장 적었다. 종합하여 볼 때 보원사판에 참여한 장인은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한 장인들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本據地가 확인된 장인으로 청주의 ‘성은’과 보은의 ‘승오’가 있다.

1577년 이후 보원사의 판각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각수 ‘광혜’는 인근의 개심사 판각에 참여한 활동만이 드러났고, 다른 지역의 사찰의 간행에 참여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광혜’는 다른 인물과 달리 서산 가야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각수임을 알 수 있으며, 광혜의 활동 근거지를 보원사로 추정할 수 있다.

## 6. 기타 匠人 분석

### 6.1 書寫者

보원사 간행 불서 중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달마대사관심론』, 『도가논변모차리혹론』, 『천지명양수륙잡문』 등에는 권말에 서사자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보원사 간행 불서의 서사자

	서명	간행시기	서사자	원본 계열	비고
1	법계성법수륙승회수재의계	1565	·	1501년 봉서사관	현 해인사 원당암
2	묘법연화경	1565	玉蟾 홍전서 서사: 智仁	1443년 화암사관	성달생서체 계열
3	제반문	1566	·	·	
4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1566	·	·	
5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1566	智軒	1498년 무량사관	
6	고봉화상선요	1571	·	·	
7	영산회상도	1571	·	독자 계통관	
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1577	·	·	
9	달마대사혈맥론	1579	·	독자 계통관	
10	달마대사관심론	1580	崔德禎	독자 계통관	
11	도가논변모차리혹론	1580	崔豪世	독자 계통관	
12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16세기말]	·	·	
13	천지명양수륙잡문	1581	廣慧	1496년 인경목활자	
14	오대진언수구경	1604	·	·	

일반적으로 목판본의 권말에 書寫者 기록이 있으면, 불서 전체의 版下本을 새롭게 正書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본문의 底本 및 서체 등을 통해 숙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묘법연화경』의 경우에는 ‘書寫 玉蟾’이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보원사의 『묘법연화경』은 1443년에 간행된 화암사관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인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서사자 ‘옥섬’은 『묘법연화경』의 본문 전체가 아니라 변란 하단에 수록된 판시주자 및 권말에 수록된 시주자, 간기 등을 필사한 서사자에 불과하다. 한편 권수에 있는 「弘傳序」 2장의 판심 하단에는 ‘書寫 智仁’이라는 기록이 있어 『홍전서』는 ‘지인’이 따로 필사한 것을 판하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원사관의 저본이 된 화암사관의 경우에는 「홍전서」가 10행21자인데 반하여 보원사관은 10행19행이며 서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당시 저본이었던 인본의 서문이 누락되어 있어,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경우에도 ‘書寫 智軒’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본문은 1498년에 간행된 무량사관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문과 권말 간기와 시주질의 서체가 크게 달라 ‘지현’이라는 서사자도 간기와 시주질만을 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은 1496년에 간행된 인경목활자본을 저본으로 판각되었는데, 권말에는 ‘書寫

廣慧'로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華嚴宗參學 正淳'의 발문을 서사한 서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刊記 다음에 이어지는 시주질 및 간행참여 명단의 서체는 또 달라 '광혜' 본인이 쓴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지명양수륙잡문』 권말 각수질에는 광혜가 '廣曹'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다른 인물이 이름을 誤記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광혜' 본인이 '廣慧', '廣曹' 등으로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광혜'의 서체는 행서와 초서를 섞어 쓰고 있으며, 몇몇 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개심사판 『몽산화상육도보설』(1584년)과 『계초심학인문』(1584년)의 간기(刊記) 부분에서도 유사한 서체의 특징이 나타난다. 같은 해에 간행된 『몽산화상육도보설』과 『계초심학인문』은 거의 동일한 서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보다 3년 전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경우는 두 인본에서 나타나는 서체의 유사도에는 못 미치지만 서체의 유사성이 있음이 확인된다. 『천지명양수륙잡문』은 광혜가 발문까지 필사하면서 좀 더 공을 들여 쓴 느낌이 있고, 개심사 판본의 경우는 간기만을 필사하여 좀 더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타난다. 개심사판 『몽산화상육도보설』과 『계초심학인문』의 서사자 기록은 없으나 광혜가 모두 각수로 참여하고 있고 서체의 특징을 볼 때 간기 및 간행참여자 명단 부분을 필사한 인물을 광혜로 추정할 수 있다.

	『천지명양수륙잡문』(1581년)	『몽산화상육도보설』(1584년)	『계초심학인문』(1584년)
忠清			
瑞			
伽耶			
開			
廣			

<그림 3> 광혜의 서체 비교

이처럼 책의 권말에 서사자의 기록이 있지만 서·발문과 간기 등을 필사하였을 뿐이고, 본문은 다른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경우가 있으니 서사자를 언급할 때는 본문 전체의 판하본을 필사하였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보원사 간행본 중 『달마대사관심론』과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경우는 각각 '취덕석'과 '최호세'가 서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두 인본은 보원사의 독자적인 인본으로 본문의 서사를 담당한 서사자로 판단되며, 권말의 간기부분도 본문과 서체의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의 내용을 필사하여 판하본을 제작한 서사자임을 알 수 있다.

## 6.2 鍊板과 木手

연판은 각수의 판각 작업 이전에 판각이 가능하도록 판목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일 또는 사람을 말한다. 판목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목재 채취, 재단, 목재건조, 마름질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목재의 재취는 나무꾼<sup>33)</sup>이 담당하였고 나무꾼은 장인에는 속하지 않는다. 연판 이외에 木手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를 연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연판의 뜻이 광의로는 목수의 일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목수의 일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의 연판은 후기 판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역이 浮板, 烹板, 熟板, 磨板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sup>34)</sup>

보원사 간행본의 연판과 목수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1565년에 간행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와 『묘법연화경』의 연판은 金孟孫과 惠學이 담당하였고, 1566년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와 『제반문』의 연판은 元甘이 담당하였다. 같은 해에 간행 일본의 경우 연판 또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달마대사관심론』의 경우는 연판은 없고 ‘木手 李業具’만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는 목수가 연판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경우와 같이 ‘鍊板 佛行’, ‘木手 敬熙’로 구분한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보원사 간행본의 연판과 목수

	서명	간행시기	권말 표기		비고
			연판	목수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명종20(1565)	김맹손, 혜학	.	
2	묘법연화경		김맹손, 혜학	.	
3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명종21(1566)	원감	.	
4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	.	
5	제반문		원감	.	
6	고봉화상선요	선조4(1571)	.	.	
7	영산회상도		.	.	
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선조10(1577)	.	.	
9	달마대사혈맥론	선조12(1579)	.	.	
10	달마대사관심론	선조13(1580)	.	이업구	
11	도가논변모자리혹론		.	.	
12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16세기말]	.	.	
13	천지명양수륙잡문	선조14(1581)	불행	경희	강당사
14	오대진언수구경	선조37(1604)	.	.	강당사

33) 한자로는 木客, 樵子, 樵夫, 樵人, 樵軍, 薪探 등의 용어를 쓴다.

34)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2014), 74-75.

### 6.3 化主

화주는 시주자들을 교화하여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주도하는 소임이다. 그러므로 간기에 화주로 기입된 인물은 해당 사찰의 개관불사를 주도한 사람임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사찰의 개관불사에 필요한 음식, 재물, 인력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募緣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up>35)</sup> 보원사의 간행본에는 化主, 大化主, 幹線大化主, 化主居士 등의 명칭이 등장한다.

보원사의 개관불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雄俊’과 ‘智和’이며, 응준은 강당사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화주로 참여하고 있다. 승려가 아닌 일반인 화주로는 李世龍이 있다.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의 경우 간기가 남아 있지 않지만 『달마대사관심론』의 화주가 ‘天旭’으로 동일한 것을 볼 때 비슷한 시기에 보원사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은 6장에 “板主 乾坤衲子 天旭”이라는 기록이 있다. 『달마대사관심론』의 권말에는 “化主 乾坤衲子 天旭 字 原明”이라고 기록하였는데, “乾坤衲子”<sup>36)</sup>는 천옥의 별명 정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천옥의 자는 ‘원명’임을 알 수 있다. 천옥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 시주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1592년 석남사에서 제작된 불화 『영산회상도』에도 “自糧畫員 天旭比丘”라는 이름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sup>37)</sup> 화주 ‘천옥’과 화원 ‘천옥’이 동일인물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힘들며 앞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표 11> 보원사 간행본의 화주

번호	서명	간행시기	권말 표기		비고
			직책명	인물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제의례	명종20(1565)	대화주	雄俊, 智和	
2	묘법연화경		화주	雄俊, 知和	
3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명종21(1566)	간선대화주	雄俊	
4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화주	雄俊, 智和	
5	제반문		.	.	
6	고봉회상선요	선조4(1571)	.	.	
7	영산회상도		.	.	
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선조10(1577)	.	.	
9	달마대사혈맥론	선조12(1579)	화주거사	李世龍	
10	달마대사관심론	선조13(1580)	화주	天旭(字 原明)	
11	도가논변모자리혹론		.	.	
12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16세기말]	판주	天旭(字 原明)	
13	천지명양수륙잡문	선조14(1581)	화주	崇惠	강당사
			대화주	戒岑	
14	오대진언수구경	선조37(1604)	화주	雄俊	강당사

35) 김지완, 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71(2017. 9), 291.

36) “천하를 衲衣(기워 만든 승려 옷)를 입고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승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雲水衲子” 즉 구름 가듯 물 흐르듯 떠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승려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

37) 문명대, “1592년 작 장호원 석남사 왕실발원 석가영산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40(2013), 363-372.

## 7. 맺음말

조선시대 보원사는 충청도 지역에서 다량의 불서를 간행한 사찰 중 하나로 1565년에서 1604년까지 총 14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보원사 관련 기록은 많지 않은데 지리지 및 책판의 간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581년에 강당사로 사찰 명칭을 변경하고, 1754년에서 1757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보원사의 각수 및 여러 장인을 통해 간기에서 밝히지 않은 여러 사항들을 도출해 내었으며, 보원사뿐만 아니라 동시대 다른 사찰에서 간행된 인본을 확인하여 동일 각수를 확인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보원사 간행본의 각수를 살펴보면, 보원사 외에도 다양한 사찰의 판각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혜선, 성은, 수인, 만희, 보경, 공지, 성안, 승오, 도진, 지현, 광혜 등이 보원사 외의 사찰에서도 활동한 각수이다. 이 중 광혜는 타 지역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보원사와 인근의 개심사에서 활동한 각수로 보원사가 주 근거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인과 만희, 보경은 鍊板, 성은, 승오, 도진은 印出匠, 보경은 幹線, 지현은 書寫者 등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장인으로서 뛰어난 승려들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원사 간행본의 각수 중 타 사찰에 중복으로 활동한 각수의 활동지역을 보면 충청도가 44건, 전라도가 13건, 경상도가 5건으로 주로 충청도에서 활동한 각수임을 알 수 있고, 작업이 있을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작업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서사자 기록이 있지만 본문 전체가 아니라 서·발문과 간기 등만을 필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본의 저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말의 서사자 기록만으로 모든 내용을 서사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유의하여야 한다. 『달마대사관심론』과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의 경우는 각각 최덕석과 최호세가 서사하였으며, 두 인본은 타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 아닌 보원사의 독자적인 인본이다.

연판의 경우 같은 해에 간행된 인본은 같은 연판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천지명양수륙잡문』의 경우에는 연판과 목수를 구분하여 업무를 분장하였다.

보원사 개판불사의 화주로는 雄俊과 智和가 1560년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570년대에는 화주 기록이 없다가 1579년에 스님이 아닌 李世龍이라는 일반인이 화주로 등장하였다. 1580년에는 天旭이 화주를 담당하였으며, 강당사로 바뀐 1581년에는 崇惠가 화주, 戒峯이 대화주를 맡았다. 이후 1604년에는 다시 翁준이 화주로 활약하였다.

보원사는 조선시대에 다수의 불서를 간행할 정도의 규모와 경제력을 갖춘 사찰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寺址만이 남아 있고 관련 기록이 전무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책판이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앞으로 책판의 제대로 된 보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을 통해 보원사의 역사가 제대로 조명받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경북대학교출판부. 『東興備考』.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출판부, 2014.
- 류명환 역. 『역주 伽藍考』. 서울: 역사문화, 2016.
- 文化財管理局.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서울: 시공사, 2008.
- 보원사. 『서산 보원사지 보물문화재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세미나』. 서산: 내포가야산 보원사, 2017.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柳希春 著, 潭陽郷土文化研究會 編. 『眉巖日記草』. 담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6.
- 이철환 저, 이대형 역. 『象山三昧』. 서산: 내포가야산 보원사, 2017.
- 鄭亨愚,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_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서울: 문화재청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 충청남도. 『(가야산·삼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제2차 학술세미나)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서산: 충청남도, 2019.
- 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 현황조사 보고서 上: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I』.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2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6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 10 중요목판인출 2』.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6.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증보판) 2-전적, 회화, 지도, 서예』. 서울: 서울특별시, 2011.
-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편. 『동아시아의 목판인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8.
- 韓汝賢 編, 李鍾醇 譯. 『湖山錄』. 서산: 서산문화원, 1992.

### [논문]

-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 研究.” 『도서관학』 20(1991. 6). 330-403.
- 김성수.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書誌學研究』 45(2010. 6). 33-63.
- 남권희, 임기영. “경상도 북부지역 사찰의 불교 자료 간행.” 『경북불교의 재발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7. 46-99.

- 김지완, 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71(2017. 9). 253-296.
- 문명대. “1592년 작 장호원 석남사 왕실발원 석가영산회도의 연구.” 『강좌미술사』 40(2013). 363-372.
- 박도화. “조선시대 불교관화의 양식과 각수.” 『강좌미술사』 29(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175-212.
- 손성필.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書誌學研究』 54(2013. 6). 359-379.
-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50(2011. 12). 351-386.
- 尹炳泰. “忠淸地方의 印刷文化-16世紀까지.” 『백제연구』 15(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4). 151-173.
- 尹炳泰. “忠淸地方의 出版文化.” 『한국출판학연구』 27(1985). 147-173.
- 李世烈. “충청지역 사찰판본 연구.” 『古印刷文化』 20(2013. 9). 141-202.
- 李世烈. “忠淸地域 典籍文化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9.
- 李文鍾. “17世紀初 瑞山地方의 地理的 狀況 - 湖山錄의 內容을 中心으로.” 『문화역사지리』 4(1992. 8.). 109-129.
- 임기영. “『道家論辨牟子理惑論』의 이본 연구.” 『書誌學研究』 52(2012. 9). 429-471.
- 임기영. “恩津 雙溪寺 간행 불서 연구.” 『書誌學研究』 78(2019. 6). 175-212.
- 임윤수.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책판 제작 활동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76(2018. 12). 189-213.
- 임윤수. “16·17세기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목판 제작에 관한 연구: 開心寺 · 普願寺 · 伽倻寺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8.
-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 [웹사이트]

- 고려대학교 도서관 (<https://library.korea.ac.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 대한불교조계종 내포가야산 보원사 (<http://www.bowonsa.kr/>)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원각사 정보박물관 (<http://wongaksa.or.kr/sungbo/>)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Im, Yoonsoo. 2018.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ood-block in Buddhist Temples from Seosan area, Chungcheong-do, during the 16th and the 17th Century: Focusing on Examples from Gaesimsa(開心寺), Bowonsa(普願寺) and Gayasa(伽倻寺)*. Theses for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Im, Yoonsoo. 2018.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ood-block in Buddhist Temples from Seosan area, Chungcheong-do: Focusing on Examples from Gaesimsa(開心寺), Bowonsa(普願寺) and Gayasa(伽倻寺)."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6: 189-213.
- Jung, Wangkum.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n Lotus Sutra Published in Cho-su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Kim, Jiwan & Nam, Kwonhee. 2017.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Buddhist Books Published by Yongjangsa, Taein in 17<sup>th</sup> Centu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1: 253-296.
- Kim, Sangho. 1991. "A Study on the Engravers in Buddhist temples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 330-403.
- Kim, Sungsoo. 2010. "An Analysis of the books Published by Chungcheong-Gamyong Provincial Offices and Cheongju-Mok Regional Offic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5: 33-63.
- Lee, seyul. 1989. *A Study on the Old Books in Chung Cheone Do*. Theses for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 Lee, seyul. 2013. "A Study on Buddhist Books Published by Buddhist temples in Chung Cheone Do." *Old Printing Culture*, 20: 141-202.
- Lim, Keeyoung. 2012.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itions Doganonbyun-mojayihokron."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52: 429-471.
- Lim, Keeyoung. 2019. "A Bibliographical Study of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SSanggyesa Temple in Choongnam Provinces."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78: 175-212.
- Moon, Myungdea. 2013. "A Study of Janghowon Seoknam Temple's Yeongsanhoesangdo(靈山會上圖) Made in 1592 by Royal Origin." *The Art History Journal*, 40: 363-372.
- Nam, Kwonhee & Lim, Keeyoung. 2017. "The books Published by Buddhist Temple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Rediscovery of Buddhism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 (pp. 46-99). And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Park, Dowha. 2007. "The Styles and Woodcutters of Buddhist Woodcut Print in the Joseon Dynasty." *The Art History Journal*, 29: 175-212.
- Sohn, Seongphil. 2013. "A Study on the Increase of the Buddhist Public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Its Significance of the Bibliographical Histor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4: 359-379.
- Woo, Jinwoong. 2011. "Bibliographic study on the printed editions of Sooryuk-moocha-pyungdeung-jaeui-chwalyo(『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0: 351-386.
- Yoon, Byungtae. 1984. "Printing culture in Chungcheong Province until 16C." *The Journal of Paekche Research Institute*, 15: 151-173.
- Yoon, Byungtae. 1985. "Printing culture in Chungcheong Province."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27: 147-173.

